

광주·전남 미래 밝힌다

중소기업에 '문화 마인드' 불어넣어

중소기업청 차장 임흥식(54) 영광 출신으로 광주고와 한국외대 독일어과, 미국 델라웨어대 정책학 석사과정을 밟은 엘리트 관료. "문화마인드를 가져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문화경영 강조.



삶의 질 높이는 도시건축 방향 제시

건축사 박홍근(50) 건축문화사랑 신문 편집인. 이번 플리 지역건축가,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참여작가, 광주문화재단 정책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도시 안에서 삶의 질과 연계된 건축의 방향을 제시.



플랜트 전국 1위...매년 100% 급성장

성정E&C 대표이사 김기영(64) 순천에 소재한 연 매출 3450억원의 중견 플랜트 설비업체 대표. 지난해 기성액 실적 2930억원으로 지역 업체로는 사상 첫 전국 1위 기록.



음악회 1000회 진행 베테랑 기획가

월드뮤직페스티벌 감독 이재진(48)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비롯해 1000회가 넘는 음악행사를 진행한 베테랑 기획가. 아시아문화전당의 중요 콘텐츠가 될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을 개최.



색소폰 연주자...광주에 재즈 전파

호남신학대 교수 박수용(40) 재즈 명문 미국 뉴스쿨 유니버시티와 뉴욕대 대학원을 졸업한 정통 색소폰 연주자로 재즈 불모지 광주에 새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박수용 퀸텟을 조직, 활동중이다.



세계 합창올림픽 그랑프리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이어진(41) 'Wish to fly' 등을 무대에 올렸고 문예회관 30주년 기념작을 준비중이다. 세계합창올림픽 그랑프리, 한국합창총연합회 '올해의 지휘자상' 수상.



눈높이 기획...클래식 대중화 앞장

광주시향 지휘자 루드비히(33) 지난 3월 광주시향 지휘자로 부임,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필름 체임버오케스트라 지휘자로도 활동중.



해외 전시회 완판 인기 서양화가

서양화가 김상연(46) 지난해 열린 마이클 슐츠갤러리 전시에서 모든 작품을 판매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전남대 미대·중국 항저우 국립중국미술학원 대학원을 거친 뒤 동양화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공연 제작 등 문화계 컨트롤 타워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박선정(53) 광주 문화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광주문화재단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광주브랜드 공연 제작 등 신규 사업도 진행중이며 광주시의회의 의원을 역임했다.



화제작 쏟아내는 유럽 차세대 화가

재작 화가 세오(34) 본명 서수경. 독일 필른에 세워진 아트호텔에 단독으로 작품을 설치하는 작가로 선정돼 화제를 모았다. 마이클 슐츠 갤러리의 전속 작가. 조선대 서양화와 졸업.



지역 문단 활성화·문학 소통창구

'문학들' 발행인 송광룡(47) 장성 출생으로 전남대 국문과를 졸업. 2001년 도서출판 심미안을 설립. 2005년 종합문예지 계간 '문학들'을 창간하고 지역문단 활성화와 문학 소통의 장을 일구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 지역 목소리 대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이무용(44) 전공인 '장소 마케팅' 관련,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 등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이지역 처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전시회·갤러리 소개 '아트 가이드'

'아트광주' 발행인 서동환(41) 광주 지역 미술계 소식을 담은 월간지 '아트가이드'를 창간했다. 지역 작가들의 전시회 소식을 전하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대 미술대학 시각디자인 전공.



소극장 '통' 개관...연극 대중화 앞장

극장 '통' 대표 오설균(43) 20년 넘게 연극계에 몸담고 배우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극단 '침춘' 대표를 맡고 있다. 올초 광주 도심에 극장 '통'을 개관, 지역 문화계의 활성화를 꿈꾸고 있다.



지역 작가들 해외 전시 유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실장 윤익(45) 지역 작가들이 참여한 프랑스 파리 정원 미술 축제를 기획하는 등 크고 작은 전시회를 기획했다. 설치 작가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장·이론 접목 여성재단 브레인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 오미란(48) 현장과 이론을 접목시킬 줄 아는 여성재단의 브레인. 전남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전남여성플라자 정책연구실장, 전남대여성연구소 연구원 등을 맡았다.



"불교를 시민속으로" 문화운동

광주 무각사 주지 청학스님(58)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다도 강좌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이끌었다. 무각사 문화관을 활성화했으며 다종교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종교화합에도 힘쓰고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 돕는 '지킴이'

여수 동백원 원장 김홍용(57) 여수의 사회 복지시설법인 송정회 이사장이자 장애인 시설 동백원 원장. 장애인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을 돕는 등 전남 동부 지역 장애인들의 지킴이로 인정받고 있다.



이주민 인권보호·구호활동 헌신

광주 노대동성당 김재학 신부(43) 농민과 이주민을 위해 일해왔다. 지난해 창립한 광주인권평화재단의 상임이사로 해외 긴급구호 활동과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14년간 친환경농법 개발해 보급

전남 유기농 명인 1호 라상채(54) 14년 동안 친환경농법으로 고품질의 단감을 생산하면서 전남 유기농 명인 제1호로 선정됐다. 전남 지역 대학과 고등학교에 출강하며 유기농 기술보급에 힘쓰고 있다.



인터사 총장까지...골목 인권사업 펴

광주YMCA 사무총장 안평환(43) 1995년 광주 YMCA 인턴으로 시작한 전통 YMCA맨. 역대 광주 Y 최연소 사무총장이다. 주남마을 5·18 희생자 위령비 설치를 주도했으며, 골목 인권사업을 진행했다.



체육인 중심 광주체육 토대 마련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 김홍식(56) 동신대 교수출신으로 체육인 중심의 광주체육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각 경기단체들로부터 한차원 수준높은 체육행정을 펴가고 있다는 평.



다문화가정·여성 지위 향상 활동

광주YWCA 사무총장 내정 김신희(45) 광주 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다음달 4일 광주 YWCA 신입사무총장에 취임한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



'폭발적 공격력' 광주 FC 주장

광주FC 포워드 박기동(23) 프로축구 K리그 신생팀 광주 FC의 주장. 191cm의 장신으로 유연함과 폭발적인 공격력을 겸비한 광주 FC 공격의 핵심 전력. 차세대 스트라이커 재목으로 평가.



사회복지 공헌 광주시의회 입성

광주시의원 정병문(51) 광주장애인 총연합회장, 광주장애인단체 총연맹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광주지역 장애인·사회복지 등을 위해 공헌해 왔으며 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으로 지방자치에 입문.



최연소 입신...바둑랭킹 3위 돌풍

프로 바둑 9단 박정환(18) 광주 출신의 프로 바둑기사로 광저우 아시안게임 바둑 2관왕.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최연소기목으로 입선에 등극했으며 현재 한국기원 바둑 랭킹 3위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9개단체 25년... '자원봉사의 어머니'

자원봉사 전문가 송윤순(59) 25년 간 9개의 봉사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자원봉사의 무한한 가능성 제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태극마크 다시 따낸 '얼짱 신궁'

양궁 국가대표 기보배(23) 광주시향 소속의 '얼짱 신궁'. 지난해 양궁 월드컵 3관왕이자 아시안게임 여자 단체전 4연패의 주역. 지난 12일 끝난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다시 한번 태극마크를 따다.



외국인 노동자의 한결같은 대변자

새날학교 교장 이천영(52) 광주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새날학교의 교장이면서 외국인 근로자문화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큰 힘을 쏟고 있다.



가수·연기자·모델 전방위 활약

미스 에이 멤버 수지(17) '배드걸 굿걸' '스텝업'으로 알려진 다국적 걸그룹 미스 에이(Miss A)의 멤버. 광주 출생으로 드라마 '드림하이'에서 열연하는 등 가수 이외에도 연기자,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



안정된 노후 설계 농지연금과 함께!

소유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평생 연금으로 보장받는 농지연금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상담 문의 **1577-7770**

농지연금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소유농지 3만㎡ 이하